

## 赤池를 읊은 七言古風 3편의 形象性

여운필\*

1. 赤池傳說과 그 詩的 受容
2. 赤池를 읊은 七言古風 3편의 分析和 評價
  - 1) 三淵의 <赤池歌>
  - 2) 藥山의 <赤池歌>
  - 3) 耳溪의 <射龍臺>
3. 結語

### <국문초록>

入聲陌韻의 一韻到底底格 장편 7언고풍인 김창흡의 <적지가>는 평측상으로는 예스런 고풍, 黏對·대장의 측면에서는 신식고풍의 면모를 지닌 작품이다.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老健한 미덕이 발휘되어 있으나, 필세의 완만함, 포서의 안이성, 結構의 느슨함, 특히 본단의 필세와 文彩가 보인 약점으로 인하여 7언고풍에 요구되는 미덕들을 잘 갖춘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이한 역사적 제재를 가장 먼저 편폭이 큰 고풍으로 형상화하면서 대가적 노련미를 발휘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역시 입성맥운의 일운도저격 장편 7언고풍인 오광운의 <적지가>는 평측상 삼연보다는 예스런 고풍, 점대·대장의 측면에서는 삼연과 유사하게 신식고풍의 면모를 지닌 시편으로서,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기상·필세·수사 등에서 두루 빼어난 장점을 지닌 수작이다. 전설의 줄거리를 서술하기 보다는 백룡·흑룡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고 본단을 이원적 서술

\* 신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각으로 포서한 점과 독자적 史實解釋을 동반한 점이 형상성을 크게 높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호방·웅혼한 氣象·情調의 剛健·華靡함과 풍격의 典雅·重厚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필세 또한 뛰어난 풍격을 지니게 하였다.

上平聲東韻 主韻, 冬韻을 從韻으로 한 主從通韻型 장편 7언고풍인 홍양호의 <사룡대>는 평측과 점대·대장 모두 예스러움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한 작품이다. 서술과 묘사 모두 창의성을 발휘한 본단의 포서가 적절할 뿐 아니라, 정조의 기복, 필세의 변화, 수사의 화려함 등도 장편가행에 요구되는 미덕을 대체로 지녔다. 호방과 전중이 조화된 기상·정조와 堅剛과 平直의 균형이 이루어진 필세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약산의 <적지가>보다는 호방·웅혼한 풍격이 미약하지만, 삼연의 <적지가>에 비해서는 필세·정조의 변화·기복과 文彩의 화려함이 앞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3편의 장시는 특성과 우열의 차이를 지녔지만, 7언고풍, 조선적 한시, 서사적 영사시로서 갖춘 우수한 형상성을 통해 18세기 한시사의 성취에 작게나마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핵심어: 적지전설, 칠언고풍, 삼연 김창흡, 약산 오광운, 이계 홍양호, 분석, 평가

### 1. 赤池傳說과 그 詩的 受容

赤池는 咸慶道 慶興府治 남쪽 10리쯤에 있던 豆滿江으로 이어진 큰 못으로 『太祖實錄』에 실린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무대가 된 곳이다.

도조의 꿈에 어떤 사람이 아뢰기를, ‘저는 백룡으로 지금 아무 곳에 사는데, 흑룡이 저의 거처를 빼앗고자 하니, 공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도조가 꿈을 깨고 나서 심상하게 여길 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

꿈에 백룡이 다시 나타나서 간청하여 말하기를, ‘공께서는 어찌하여 저의 말을 유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또한 그 날짜까지 알렸다. 도조가 비로소 이상하게 여겨 기약한 날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보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백룡과 흑룡이 한창 못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도조가 흑룡에게 화살 하나를 쏘니 죽어서 못에 잠기었다. 뒷날의 꿈에 백룡이 와서 사례하며 말하기를, ‘공의 큰 慶事가 장차 자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sup>1)</sup>

이 度祖<sup>2)</sup>의 惡龍退治譚은 ‘諺傳’<sup>3)</sup>이란 다른 官撰書의 언급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居陀知說話『三國遺事』 권2) 같은 傳來의 惡龍退治譚을 다소 번개하여 수용했던 作帝建說話『高麗史』 卷首 <高麗世系>의 진철을 답습한 것임을 쉬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태조실록』·<龍飛御天歌>의 허다한 허구담과 마찬가지로 개국의 당위성을 내세우고자 한 傳說이라 할 것이다.

이른바 六祖를 신성화시키려는 조짐은 이들과 연관된 正統傳記의 추이에서 이미 엿보인다. 威化島 회군 직후에 지어진 李穡(1328~1396)의 桓祖神道碑文<sup>4)</sup>은 5년 뒤인 태조 2년에 權近(1352~1409)<sup>5)</sup>·鄭摠(1358~1397)<sup>6)</sup>에 의하여 개찬되었지만, 거기에도 忌諱를 없애고 개국을 미화하기 위한 과장이 추가되는 변모가 생겼을 뿐 신이한 행적은 없어, 國祖傳說이 태종대 이후의 소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3인의 글에 다 있었던 환조의 측실 李氏·金氏의 존재를 삭제한 실록의 환조비문이나 다음의 기사가 그런 징후

1) 河崙 외 편, 『太祖實錄』 권1 <總敍>.“度祖夢有告之者曰,‘我白龍也, 今在某處, 黑龍欲奪我居, 請公救之.’ 度祖覺以爲常不異之 又夢白龍復來懇請曰, ‘公何不以我言爲意? 且告之日. 度祖始異之, 至期帶弓矢往觀之, 雲霧晦冥, 有白黑二龍, 方鬪淵中. 度祖射黑龍一矢而斃, 沈于淵. 後夢白龍來謝曰, ‘公之大慶, 將在子孫.’”

2) 太祖의 조부 李椿(?~1342)의 봉호이다. 본관은 全州, 초명은 善來로 行里의 제4子이며, 元으로부터 몽고명 李顏帖木兒를 받고 부친의 千戶職을 계승했다. 韓東百戶의 딸 朴氏와 혼인하여 塔思不剌[子興]와 子春, 雙城總管의 딸 趙氏와 재혼하여 完者不花를 낳았다. 태조 3년(1394)에 度王에 추봉되고, 뒤에 度祖로 개봉되었다.

3) 李荇 외 편,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0, 「慶興都護府, 山川條. “諺傳我度祖射黑龍之淵.”

4) 李穡, <(전략) 完山府院君·朔方道萬戶兼兵馬使·榮祿大夫判將作監事李公神道碑銘, 并序>, 『牧隱文集』 권15.

5) 權近, <有明朝鮮國桓王定陵神道碑銘, 并序>, 『陽村集』 권36.

6) 鄭摠, <有明朝鮮國桓王定陵碑銘>, 『復齋集』 권하.

의 뚜렷한 증거이다.

문정공 이색이 지은 정릉 신도비문을 거두어들이라고 명하고, 예조에 교지를 내려 “대소 관리가 이색이 지은 함흥부 정릉비문을 인출하여 집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서울과 외방을 다 세밀하게 방문하여 찾아서 얻어 바치게 하라.”라고 하였다.<sup>7)</sup>

이 왕명은 목은이 지은 글에 고려조의 관직이 자세히 기술되고 측실의 존재가 나타나는 점뿐만 아니라 국조에 요구되는 신이한 행적이 결여된 점까지 고려한 데 말미암아 내려졌을 텐데, 그 세부조치는 목은 후손의 다음 증언에서 확인된다.

永樂 정유년(1417)에 書雲觀에 소장된 참서를 소각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서울과 지방에서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던 요망하고 허탄한 글들을 기일을 정해 자수하여 관청에 바치게 하여 불태우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여 요서조작법에 의거하여 죄를 주게 하였다. 이색의 문집 제15권도 날짜를 정하여 찾아 바치게 하였다.<sup>8)</sup>

이 기사는 그 왕명이 『牧隱文藁』 ‘제15권’에 실린 신도비문과 <全州李氏移居朔方以來墳墓記>를 없애기 위한 것임을 알려 줄 뿐 아니라, 도조의 惡龍退治譚 같은 것이 그 후속작업으로 생겨났음을 추정케 하는 단서이다. 이를 통해 태종 13년(1413)에 편찬이 끝난 『태조실록』이 3차의 개수를 거친 끝에 문종 1년(1451)에야 완성된 일이 王權과 臣權의 관계에 대한 이견뿐만 아니라, 국조의 허구적 사적을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와도 연관된 일임을 짐

7) 卞季良 외 편, 『太宗實錄』 권34, 17년 11월 辛未條, “命收文靖公李穡所製定陵神道碑文, 下旨禮曹曰, ‘大小員人, 印出李穡所製成興府定陵碑文家藏者, 京外備細訪問求得以進.’”

8) 李廷馨, 『東閣雜記』 권상. “永樂丁酉命燒書雲觀所藏讖書, 仍令京外私藏妖誕之書 定期自首, 納官燒火, 違者許人陳告, 依造妖書之律罪之. 李穡文集第十五卷, 亦令定日推納.”

9)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은문고』의 해당비문은 남았을 뿐 아니라, 『동문선』에도 그대로 실려 있고, 동일인에 대한 같은 문체의 양촌의 글도 실려 있어 관찰서로서는 결정적이라 할 심각한 과오를 노정할 바 있다.

작게 한다. 마지막 개수가 태조가 14년 동안이나 臣事했던 禍王을 辛禍로 바꾼 단순수정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현전 『태조실록』은 사실상 1442년 9월까지 개수한 결과인 셈인데, 3년 뒤인 세종 27년에 편찬된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이 공통적으로 적지전설을 신고 있음이 그 증좌라 할 것이다. 正祖 11년(1787)에 국왕이 <慶興府赤池紀蹟碑銘, 并序> (『弘齋全書』 권15)를 짓거나, 德源의 湧珠里, 慶興의 赤島·赤池, 咸興의 歸州洞에 御製 紀蹟碑를 세운 것을 기념하여 관련자에게 포상한 데서 왕조가 이런 작업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진했는지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적지 이야기는 왕조에서 의도적으로 지어서 문헌에 올리면서 민간전승으로도 자리 잡게 된 전설이라 할 터인데, 그것이 계속 개작을 겪으면서 구전되었으리라는 것을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孔州의 남쪽 십리에 있는 함림산의 아래에 못이 있으니 이것이 적지이다. 둘레가 이십 리에 이르고 깊은 곳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며, 동북쪽으로 두 만강에 이어지는데, 그 위에 사룡대의 옛터가 있다. 『州誌』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에 우리 도조께서 망덕산 밑에서 사셨는데, 밤의 꿈에 흰 옷을 입은 늙은이가 문을 두드리고서 ‘저는 남쪽에 있는 못의 용인데, 도적이 내침 하므로 장차 그 처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공께서는 활을 잘 쏘신다고 들었으니, 공께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후세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도조께서 허락하셨다. 이튿날 아침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남쪽 봉우리에 올라 바라보니, 못 위에 비바람이 모여들고 하늘이 어두운 가운데, 흑룡이 동북쪽에서 일어나서 백룡과 싸우는데, 물을 세차게 튀기면서 얽혀 서로 일진일퇴하고 있었다. 도조께서 주객을 분별할 수 없어 화살을 거두어 돌아갔더니, 그날 밤에 신웅이 또 나타나서, ‘공께서는 왜 활을 쏘지 않으셨습니까?’ 하였다. 도조가 까닭을 말하자, 늙은이가 ‘흰 것이 저이고, 검은 것이 도적이니, 공께서는 검은 놈만을 쏘소서.’라고 말하였다. 도조께서 잠을 깨어 자시에 못가에 이르니, 두 용이 또 맞붙어 싸우고 있기에, 곧 그 중 검은 놈에게 활을 쏘아, 단번에 그 허리를 맞추시니, 피가 샘처럼 쏟아져서 못이 다 붉어졌다. 이에 흑룡이 꼬리를 끌고 언덕을 뚫고 달아났으므로, 못 밑에 아직도

깊은 도랑이 있어 이리저리 7·8리나 구부러져서 강으로 들어간다. 토민들이 그 못을 赤池라 하고, 그 나무를 屈伸浦라 하였다.”<sup>10)</sup>

州志에서 인용했다고 하고서는 바로 이어서 ‘고로 중에도 아는 사람이 없다(故老無知者)’고 한 데서 앞의 추정이 옳음을 엿볼 수 있거니와, 이는 실록과 줄거리는 일치하면서도, 도조가 한 번 간 게 아니라 두 번째 가서 활을 쏘았다거나, 화살을 맞은 흑룡이 죽지 않고 달아났다는 화소가 보태지는 등 結構가 치밀해지고, 배경·행위의 디테일이 세련되어 있다. 구전과정에서 윤색됨으로써 서사성을 훨씬 잘 갖추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경로를 이렇게 추정할 이 이야기는 전설의 중요한 類型이라는 점보다는 詩歌와 지속적으로 연관을 맺은 소재라는 점에서 중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 『龍飛御天歌』는 이를 요긴한 소재로 수용한 대표적 樂章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주석에 전설의 당초의 면모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데, 전체 125장 중 제22장에는 전설의 화소가 이렇게 수용되어 있다.

赤帝 니러나시릴썩 白帝 혼 갈해 주그니 火德之主을 神婆ㅣ 알외스불니  
 黑龍 혼 사래 주거 白龍을 살아내시니 子孫之慶을 神物이 슬뵈니  
 赤帝將興 白帝劍戮 火德之王 神婆告止  
 黑龍即殪 白龍使活 子孫之慶 神物復止

전설은 漢 高祖의 大蛇退治譚<sup>11)</sup>을, 후절은 도조의 黑龍退治譚을 영탄한

10) 洪良浩, <射龍臺記>, 『耳溪集』 권13. “孔州南十里威林山之下, 有水匯焉, 是爲赤池. 周二十里, 深處不可入, 東北連豆滿江, 其上有射龍舊墟. 州誌曰, “昔我度祖王居望德山下, 夜夢有衣白翁敲門曰, ‘我南池之龍也, 有寇來攘, 將失厥所. 聞公善射, 願公助我. 後世必有慶矣.’ 度祖許諾. 翌朝帶弓矢, 登南峰望見, 池上風雨驟至, 天晦冥, 有黑龍自東北起, 與白龍鬪, 盪擊糾蟠, 迭相進退, 度祖未能辨客主, 斂矢而還. 是夜神翁復見曰, ‘公何爲不射!’ 度祖告之故, 翁曰, ‘白者我, 黑者寇, 公其惟黑之射.’ 度祖既覺, 復至池上, 二龍又合戰, 乃射其黑者, 一發中其腰, 血泉湧, 池盡赤. 於是黑龍曳尾挾岸而走, 池下尙有深溝, 縱橫屈折七八里, 入于江. 土人謂其池曰赤池, 謂其浦曰屈伸浦.”

11) 『史記』 「高祖本紀」의 다음 이야기이다. 沛縣의 亭長 劉邦이 鄴山에 賦役하러 가는 죄수를 인솔하던 도중에 도망자가 속출하자, 豐西의 澤中에서 남은 자들을 모두 풀어 준 뒤, 밤에 길에 누운 큰 뱀을 죽이고 갔다. 뒤따르던 이가 그 곳에 이르니 한 노파가 슬피 울기에 이유를 묻자, 赤帝의 아들이 자신의 자식인 白帝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방은 이

것으로, 赤帝子인 劉邦이 白帝子인 뱀을 죽인 일이 漢室을 열 讖瑞였다는 사적과 도조가 백룡을 돕고자 흑룡을 죽인 일이 손자가 조선조의 개조가 될 참서였음을 대비시켜 서술한 것이다. 문학적 형상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성에 치우친 가사이지만, 막 창제한 훈민정음을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유례가 없었던 형태로 된 가사로 가다듬어 놓은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게다가 詩經體로 대응시킨 한시는 적지전설이 한시화된 단초라는 가치를 지닌다. 이 시는 賦·比의 수법으로 『詩經』 頌體의 詩認識을 잘 계승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 점은 正祖가 지은 <慶興府赤池紀蹟碑銘, 并序>의 銘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계승되어 있다.

적지전설이 개인작 한시에 언제 처음 수용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를 제재로 한 시편으로 한국문집총간에서 확인되는 것은 金德誠(1562~1636), 金榮祖(1577~1648), 申翊聖(1588~1644), 趙根(1631~1690), 金昌翁(1653~1722), 吳光運(1689~1745), 李宗城(1692~1752), 洪良浩(1724~1802) 등이 지은 9제 정도이다.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하여, 영·정 조대에 성황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역사·풍속을 詩化한 경향이 보였던 詩史의 추이와 흐름을 같이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신익성의 <적지>(『醒齋遺稿』 책5), 김영조의 <적지>(『忘窩集』 권3), 이종성의 <적지>(『梧川集』 권1)는 다 7언절구 1수이고, 조근의 <적지>(『損菴集』 권8)는 5언율시 2수이며, 홍양호의 <적지>(『耳溪集』 권2)는 5언소율 1수이다. 대체로 전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감회를 토로한 작품들이다. 그리고 金德誠·金昌翁·吳光運·洪良浩의 4제는 장편인데, 김덕함의 <적지>(『醒翁遺稿』 권1)는 5언이고, 나머지는 7언이다. 이 중 김덕함의 작품은 平聲支韻의 일운도저격 20운시로, 전반부의 묘사와 중반부의 敘事는 5언고풍다운 질박한 표현과 高古한 풍격이 수준급이지만, 말미 부분은 前意를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심후한 여운을 지니도록 收結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장편들 중에서 모두 18세기에 지어진 7언고풍인 김창흡의 <赤池歌>, 오광운의 <赤池歌>, 홍양호의 <射龍臺>는 17세기부터 고조된 고풍 추구

의 흐름과 우리 역사를 詩化한 경향이 정점에 달한 시기에 산출된 일대의 명가들의 시편이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약산이 삼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압운까지 같도록 지은 점과 이계가 약산과 句數를 같게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런 점들은 이를 동일기준으로 자세히 분석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에 대한 평가 및 대비적 평가를 하게 하는 근거라 할 것이다.<sup>12)</sup>

## 2. 赤池를 읊은 七言古風 3편의 分析과 評價

### 1) 三淵의 <赤池歌>

삼연 김창흡(1653~1722)의 <赤池歌>(『三淵集』 권13)는 적지전설을 제재로 한 7언고풍 가운데 가장 일찍 지어진 작품이다. 三淵은 64세이던 숙종 42년(1716) 2월 말부터 3개월여 동안 함경도 일대를 유람하면서 北關의 산수·풍속·역사·민풍 등을 읊은 153제 247수를 지은 바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赤島歌>·<射龍>(2수)과 같은 翼祖·度祖의 사적을 제재로 한 시편이 포함되어 있다. <적지가> 또한 그런 예의 하나로 본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匡城<sup>13)</sup>에 이르러 왕조의 자취를 심방하노라니  
성의 남쪽 십리에 물이 붉었던 못이 있다고 하네.  
늙은 吏屬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적지라고 하는데  
두 마리 용이 나누어 거처로 삼았던 못이었답니다.’ 하네.  
땅의 넓고 좁음을 다투어 서로 양보하지 않았으니

12) 삼연·이계의 시는 金南基, 『赤島와 赤池를 노래한 金昌翁과 洪良浩의 敘事漢詩 研究』(德成語文學) 10,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2000)에서 이미 전문을 번역, 제시하면서 논의한 바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한편, 검토의 방법을 크게 달리 하기로 하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13) 匡城은 함경도 慶興府의 별칭이다.



힘이 센 자는 흑룡이고 약한 자는 백룡이었다네.  
 힘에 억눌려 사람에게 호소함을 피하지 못하였는데  
 호소한 바가 어찌서 활을 한 번 쏘기를 애걸함이었던가?  
 神武를 지닌 聖祖께서 鱗蟲에게 감동하여  
 꿈 속에서 곧 그리 하겠노라고 승낙하셨다네.  
 밤이 다하도록 바람 속에 번개와 우레가 요란하였는데  
 큰 구름이 뻗친 진영에는 틈이 보이지 않았네.  
 비늘과 지느러미를 엿보면서 때를 기다리노라니  
 수면으로 검은 용의 겨드랑이가 올라왔네.  
 굽은 角弓을 神異한 팔로 잡아당기자  
 흰 화살촉이 구부정한 등뼈를 비스듬히 꿰뚫었네.  
 소름 끼치는 소리는 貝闕이 무너지듯이 요란하고  
 성난 물결은 金翅鳥가 물을 가르듯이 흔들렸네.  
 핏빛으로 변한 검은 하늘과 누런 땅이 오르내리니  
 屈伸浦 입구에서는 마침내 혼백이 사라졌다네.  
 통쾌하게도 승패가 편각에 결정되니  
 水府에 안온하게 거처한 것은 용 한 마리뿐이었네.  
 용이 서로 잡아먹을 뿐 사람을 범하지 않을지라도  
 한쪽을 돕고 한쪽을 누름이 어찌 장난이랴?  
 鄭나라 때에 성문에서 싸움을 구경함은 심상하지만<sup>14)</sup>  
 漢나라의 大澤의 일이 符讖으로 호응함은 뛰어나게 달랐네.<sup>15)</sup>  
 이 거조는 뱀을 벤 것보다 매우 자랑할 만하고  
 신령스러운 용에 견주면 뱀은 도마뱀과 같네.  
 하늘이 폐하고자 함에 五德이 다하였으니  
 松京의 운수가 이미 바뀌었음이 곧 판명되었네.

14) 이 구절은 “전에 성 안의 뱀과 성 밖의 뱀이 정나라의 남문 안에서 싸우다가 안의 뱀이 죽었다.(初, 內蛇與外蛇鬪於鄭南門中, 內蛇死.)”라고 한 『春秋左傳』 莊公 14년조의 기사를 가리키고자 한 것이다.

15) 이 구절은 劉邦이 沛縣의 亭場으로 있을 때 豐西의 澤中에서 白帝의 아들인 大蛇를 죽인 일이 漢의 開祖가 될 讖瑞였음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다.

어린아이 때에 <龍飛御天歌>를 즐겨 외웠더니  
 늘그막에 우연히 北關의 나그네가 되네.  
 눈 앞의 붉게 넘실거리는 천 이랑의 물은  
 옛 일과 방불하여 차이가 없는 듯하네.  
 풍류롭고 일을 좋아하는 늙은 대수께서  
 나를 위하여 못 가에다 술자리를 베푸시네.  
 그 사이에서 쫓을 낀 胡姬는 <鳳笙曲>을 타는데  
 軍幕에 모인 장사들에게는 활을 나누어 주네.  
 물가의 풀밭에 희게 칠한 과녁을 높이 세우니  
 번쩍거리는 유성이 물에 비치며 날아가네.  
 명중을 다투어 외치며 손뼉 치며 웃으니  
 큰 물고기와 구부정한 거북이는 피하려 하네.  
 좌우의 뱃사람들은 큰 그물을 펼쳐서  
 비늘이 흰 붕어를 천 마리나 잡네.  
 싸 하고 부는 회오리바람에 물결이 모래를 씻더니  
 경각에 하늘의 모습이 어둑해졌다가 파래지네.  
 射龍臺 위에 오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노라니  
 저녁녘의 채색구름이 맑은 물결 위로 떠오르네.  
 참으로 우환이 없어진 못 속의 흰 교룡은  
 오랜 세월에 하얀 수염이 몇 자나 자랐을까?  
 당시에 仁德에 감화받음이 어찌 다함이 있으랴?  
 생겨나서 자란 상서로움이 나라의 기맥을 인도한다네.

我到匡城訪王迹 城南十里池水赤  
 問之老吏曰赤池 池是雙龍所分宅  
 爭地闊狹不相讓 强者是黑弱者白  
 力屈不免嚮人訴 所訴何事乞一射  
 聖祖神武感鱗蟲 夢裏然諾在宿昔  
 風雷霹靂一夜間 陣亘長雲不見隙  
 玉甲銀鬢巧伺便 水面揭起烏龍腋

駢駢角弓神臂展 白鏃斜貫穹窿脊  
 殺聲轟如貝闕碎 怒濤簸若金翅劈  
 天地低昂血玄黃 屈伸浦口已褫魄  
 快哉輸贏片時決 穩處水府龍一隻  
 龍之相啖不干人 一扶一抑豈戲劇  
 尋常觀鬪鄭時門 卓異膺符漢大澤  
 堪誇此舉邁斬蛇 蛇比神龍等蜥蜴  
 天之所廢五德窮 便判松京運已革  
 兒時喜誦御天歌 白首偶作出關客  
 眼前千頃赤汪汪 舊事彷彿如不隔  
 風流好事老太守 爲我臨池設酒席  
 胡姬挾瑟聞鳳笙 壯士分弓集虎帑  
 高張粉鵲青草渚 剌剌流星映水擲  
 競呼喉中拍手笑 大魚穹龜欲辟易  
 舟子左右漾大網 擁得銀鱗千首鯽  
 回風颯颯浪淘沙 頃刻天容黯且碧  
 射龍臺上跪坐久 彩雲浮出澄波夕  
 池中素蛟固無恙 歲久霜髯長幾尺  
 當時感德豈有窮 毓祥呈瑞引國脉

入聲韻으로 일운도저한 26운의 장편으로 잡언을 전혀 섞지 않은 齊言體 7언고풍이다. 唐代 이후의 仄韻古詩에서는 起句만 仄脚으로 하고 나머지 출구는 모두 平脚을 사용함이 보통이지만, 측각이 수구 외에도 11개나 있으며, 측각으로 하더라도 韻脚과 같은 聲調는 피하는 상례를 따르지 않고, 입성을 그냥 쓴 구절이 ‘我到匡城訪王迹’, ‘城南十里池水赤’, ‘快哉輸贏片時決’ 등 세 군데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옛것을 모방하는 경향이 컸던 杜甫·韓愈·蘇軾의 취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또 고풍의 경우 孤平은 꺼리지 않지만 孤仄은 기피하는 상례대로 제4자가 고평인 구절 ‘池中

16) 王力, 송동준 역, 『중국시문학』 2, 소명출판, 2005, 330~332면 참조.

素蛟固無恙’이 보인다. 그리고 측운시인 탓에 下三平句는 보이지 않으나, 三仄調, 즉 下三仄으로 된 구절이 ‘歲久霜髯長幾尺’을 비롯하여 18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이다. 특히 제2자만 평성이어서 5측구가 된 ‘屈伸浦口已褊魄’의 경우 落調인 7측은 범하지 않았으나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 예이다.

고시는 2·4 同聲, 4·6 동성, 2·4·6 동성으로 하는 拗句·拗黏을 허용하는 탓에 律句가 드물게 마련이지만, 율시와 달리 측운이 허용되므로 율구는 무방하다.<sup>17)</sup> 이 작품의 경우 2·4·6이 모두 평성인 구절 ‘快哉輸贏片時決’, ‘池中素蛟固無恙’이 보이고, 모두 측성인 구절도 ‘強者是黑弱者白’, ‘所訴何事乞一射’, ‘夢裏然諾在宿昔’, ‘舊事彷彿如不隔’, ‘爲我臨池設酒席’, ‘舟子左右漾大網’ 등 6개나 있어, 이런 양상이 잘 확인된다. 또 고풍스러우려면 율구를 기피하는 게 바람직하건만, 이 시에는 율구가 19개로 꽤 많은 가운데, 율련도 ‘尋常觀鬪鄭時門, 卓異膺符漢大澤’, ‘回風颯颯浪淘沙, 頃刻天容黯且碧’ 등 2개가 있다. 이는 율구를 매우 드물게 썼던 杜·韓과는 다른 면 모인데, 이는 측운시라서 율구를 써도 무방하다는 의식과 신식고풍에 가깝게 하려는 의식이 함께 작용한 탓에 생긴 일로 볼 수 있겠다.

고시가 율시와 다른 점은 對仗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있어, 대장이 전혀 없는 작품도 흔하다. 이 작품의 경우 ‘胡姬挾瑟聞鳳笙, 壯士分弓集虎帟’, ‘殺聲轟如貝闕碎, 怒濤簸若金翅擘’, ‘尋常觀鬪鄭時門, 卓異膺符漢大澤’, ‘兒時喜誦御天歌, 白首偶作出關客’ 등 대장연을 4개 지니고 있어, 두·한 이래로 일운도저격 7언고풍이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삼은 점과는 차이가 있다.<sup>18)</sup> 이처럼 대장을 비교적 많이 사용한 점도 신식고풍의 면모에 가깝다. 대장의 위치에는 일정한 규칙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평측에서는 대체로 예스런 고풍의 면모를 지닌 가운데, 黏對·대장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한 점도 지닌 시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7언구로 일관한 句式을 통하여 정연한 미감을 지니도록 형상화한 거편이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구식으로 말미암아 지루한 느낌을 주는 단점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법·어법에 있어서는 ‘我到匡城訪王

17) 위의 책, 350면.

18) 위의 책, 400면.

迹’과 같은 1인칭 노출, ‘問之, 所訴, 快哉, 天之所廢, 龍之相啖’의 허사 사용, ‘一扶一抑豈戲劇’의 同字句中對, ‘夢裏然諾在宿昔’의 산문적 어법과 같이 근 체시와는 다른 구법을 통해, 고풍적 특성을 적절히 추구하였음이 확인된다. 또 서술기교의 경우 ‘問之老吏曰赤池, 池是雙龍所分宅’이라는 직접화법, 칩어 ‘駢辭, 剡剡, 颯颯’의 도입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감탄구·의문구·반복구·연환구와 같은 것은 거의 활용되어 있지 않아서, 구법의 변화나 어세의 기복이 미약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표현기법의 측면에서는 서술과 직유·은유를 병용한 묘사에 거의 의존하여 서사를 펼친 가운데, 전거수사라 할 것이 ‘尋常觀鬪鄭時門, 卓異膺符漢大澤’에만 사용되고, ‘赤池, 屈伸浦, 용비어천가, 사릉대’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한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고유제재를 다룬 영사시에 고유명사가 적절히 사용된 일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전거수사의 경우 ‘漢大澤’은 <용비어천가>가 이미 사용했던 것이라 진부하다. 또 다양한 수사기교와 화려한 文彩를 지닌 편이라 할 수는 없는 가운데, 전편에서 정채로운 活語라 할 것을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필세의 변화가 미약한 점은 기상·정조의 평탄성과 함께 7언고풍에 요구되는 峭峻과 멀어지게 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 시의 結構는 起段-本段-結段-後段의 4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기단(제1~4구)은 적지의 所在와 명칭을 언급한 데 이어, ‘雙龍所分宅’이라는 말로 갈등을 암시함으로써 篇意를 밝힌 부분이다. 元代의 范梈은 五·七言을 막론하고 長古篇法에 대하여, 首段에는 한 편의 의도가 다 들어 있어야 하고, 다음 단락을 이끄는 餗句가 이어져야 하며, 거기에는 하나는 위를 마무리하고 하나는 아래를 생성시키는 구절이 있어야 한다<sup>19)</sup>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시의 제1·2구의 首段 역할은 미흡한 점이 보이지만, 제3·4구는 가장 어려워 老手라야 가능하다는 과구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게 한 솜씨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 范梈, <五言長古篇法>, 『木天禁語』(吳景旭 편, 『歷代詩話』 권67 所收). “首段是序子, 序了, 一篇之意皆含在中. (중략) 次要過句, 過句名爲血脈引過次段. 過處用兩句, 一結上, 一生下, 爲最難, 非老手未易了也.”

제3구의 ‘老吏曰’은 서술시점의 변화라는 기교를 보여 준 장점을 지닌 한편으로, 제4구 이하의 내용을 老吏의 말화로 오해하게 하는 단점도 지닌 양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단에서 시인이 어릴 때 <용비어천가>를 즐겨 읽었다고 한 데서, 敍事가 주로 시인의 시점에서 진행되었음이 드러나므로, 시점의 변화가 준 의의는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단(제5~22구)은 적지전설을 敍事를 중심으로 하여 鋪敍한 부분이다. 이 단락은 다시 백룡과 흑룡의 거처 갈등(제5~6구)-백룡의 구원 호소와 도조의 응낙(제7~10구)-도조의 神弓에 의한 흑룡 퇴치(제11~20구)-적지가 다시 백룡의 평화로운 거처가 됨(제21~22구)으로 요약할 수 있는 4개의 작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도조의 신이한 능력에 의한 積德’이라는 단락 전체의 주제를 전설을 잘 수용하여 시간적 순차에 따라 서사적으로 펼친 이런 시상전개는 大義를 세워서 鋪敍하는 방법이 정해진 뒤에 지으면 문맥이 관통하고 의경이 정연해져서 볼 만하게 된다<sup>20)</sup>는 시법에 부합한다고 할 만큼 순탄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서술에 의존한 가운데 상상적 묘사가 부분적으로 원용되고, ‘굴신포·사룡대’라는 지명이 추가된 것을 빼면, 실록에 실린 전설의 줄거리가 서술의 역전이나 창의의 추가 같은 인상적 장치 없이 밋밋하게 펼쳐져 있어, 서술의 적절성 내지 자세함이라 할 ‘鋪敍’가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또 7언고시에 요청되는 “파란이 열고 닫히기를 강해의 물결과 같아서 한 물결이 잠잠해지기 전에 한 물결이 일어나듯이 해야 한다. 또 兵陣이 막 正攻法을 쓰다가 또 다시 奇攻法을 쓰고, 막 기공법을 쓰다가 문득 다시 정공법을 쓰듯이 하여, 출입과 변화에 한도가 없어야 한다.”<sup>21)</sup>고 설명된 바 있는 필세·情調 등의 開合이 두드러지다고 보기 어려운 단점도 찾을 수 있다. 한편, “장편고체는 들쭉날쭉한 가운데 때때로 정제된 말이 나와야 더욱 필력이 드러난다.”<sup>22)</sup>고 한 시법에 견주어 볼 때, 整齊語 내지 活語라 할 것이 ‘穩處水府龍一隻’ 이외에는 보기 어

20) 揭傒斯, <古詩要法>(오경욱 편, 앞의 책, 권67 소수). “且先立大意, 鋪敍既定然後下筆, 則文脉貫通, 意無斷續整然, 可觀.”

21) 楊載, <七言古詩>, 『作詩準範』, 『詩法家數』(胡震亨 편, 『唐音癸籤』 권3 소수). “波瀾開合如江海之波, 一波未平, 一波復起. 又如兵家之陣, 方以爲正, 又復爲奇, 方以爲奇, 忽復是正, 出入變化, 不可紀極.”

22) 傅若金, 『詩法正論』, 『壬後集』上之下. “長篇古體則參差中時出整齊語, 尤見筆力.”

렵다는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이런 약점들은 이 시의 핵심단락인 본단 뿐만 아니라 전편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결단(제23~34구)은 적지전설에 대한 감회를 피력한 대목으로 도조의 積德을 漢 高祖의 白蛇退治에 견주어 찬미하고, 그것이 조선조가 고려조를 대신할 識瑞였다고 논단한 내용이다. 영사시를 짓는다는 입장에서 본단을 史實의 陳述로 보고, 이 단락을 그에 대한 解釋 내지 논단으로 인식한 데 따른 사상전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락은 ‘개국의 참서’라는 논단이 진부하기 짝이 없는 점도 문제이지만, 한시 일반의 결미, 즉 舍處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장편고시의 편법에서 말하는 歸題에 해당하는 대목이기도 하게 한 애매한 면모로 되어 있다. 그래서 起·承·轉에 이은 合, 즉 收結의 역할이 불충분한가 하면, “歸題는 바로 본말의 한두 구절을 기구에 엮어서 다시 첫머리를 돌아보도록 함을 이른다.”<sup>23)</sup>라고 한 귀제의 측면도 불분명한 단락이 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이 사족이라 할 제4단락을 둔 데서 생기기도 했다는 점에서는 이해받을 만한 점도 있다.

후단(제35~52구)은 본편을 끝낸 뒤에 敷衍이라 할 대목을 덧붙인 단락으로, 敘事 중심인 장편의 통례로 보면 蛇足이다. 그 내용은 태수가 마련한 술자리, 주변의 무부의 활쏘기, 어부의 어렵의 정경을 서술·묘사한 데 이어, 도조의 사적과 그런 정경들을 통합한 감회를 덧붙인 것이다. 제35~48구에서 길게 펼친 정경들이 本詞에 대한 사족일 뿐 아니라, 제3단에서 이미 사실에 대한 감회를 길게 밝힌 마당에, 다시 사실과 연관된 감회와 해석을 덧붙여 놓았으니, 중복도 생긴 부연이라 할 것이다. 시법에 구애받지 않은 작풍을 지닌 시인인 점, 64세라는 고령에 지은 작품인 점, 오랜 구상 끝에 고심한 시작이라기보다 酒席에서 즉흥적으로 지은 것인 데 두루 말미암은 현상이겠지만, 의욕적 거편의 빛이 바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구법·어법·표현·시상전개 등이나 전편의 氣象·情調·필세에는 老健한 미덕이 잘 발휘된 수작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시체나 체제에 걸맞은 호방·강건·웅혼 등을 지닌 돋보이는 풍격을 구현한 작품으로 보기는 어

23) 范梈, <七言長古篇法>(오경옥 편, 앞의 책 소수). “歸題乃本末一二句, 綴上起句, 又謂之顧首.”

려운 듯하다. 이런 점에서 “역사의 저 편을 회고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생동감 있게 그려낸 수작”<sup>24)</sup>이라는 평가에는 값한다 하겠으나, 호응린이 7언가행을 두고 “합벽이 종횡하고 변환이 초홀하여, 빠른 번개와 진동하는 천둥, 빠른 바람과 세찬 비와 같은 것이 歌이다.”<sup>25)</sup>라고 한 요구에는 미흡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또 본단에 돋보이는 요소가 적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平調에 가까운 가운데, 才學이 그다지 발휘되지도 않은 점은 약산이 <적지가>의 리에서 瑰偉하지 않다고 한 말을 당파적 편견이나 好勝心에 말미암은 譏評이라고 매도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전설이라는 우리 역사와 연관된 인상적인 제재를 선구적으로 무난하게 형상화한 작품이자, 대가다운 노련미를 발휘한 웅편고풍이라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 藥山의 <赤池歌>

약산 오광운(1689~1745)의 <赤池歌>(『藥山漫稿』 권4)는 삼연의 <적지가>보다 19년 뒤인 1735년에 지어진 것으로, 그의 작품 중 『海東樂府』 28수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사적을 제재로 한 유일한 영사시이다. 그는 “우연히 새로 간행된 『三淵集』을 보니 <적지가>가 있는데, 바로 도조의 사적을 읊은 것이다. 그 문사가 썩 괴위하지는 않음을 아쉽게 여겨, 드디어 옆 사람을 시켜 붓을 적시게 하여 되는 대로 지어 입으로 불렀다.”<sup>26)</sup>라고 한 詩引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창작의욕을 드러낸 바 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싸움을 용은 돌아보지 않았거늘  
용의 싸움을 어찌 나에게 아뢰었던가?  
채찍의 길이가 용의 배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24) 金南基, 「三淵 金昌翁의 詩文學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1, 126면.

25) 범평, 앞의 글. “闊關縱橫, 變幻超忽, 疾雷震電, 淒風急雨, 歌也.”

26) 吳光運, <赤池歌>, 『藥山漫稿』 권4. “偶閱新行三淵集, 有赤池歌, 卽度祖射龍事. 惜其詞不甚瑰偉. 遂倩傍人濡筆, 漫興口呼.”



꿈에 용과 말하고는 깬 뒤에 가지 않았다네.  
 날아다니는 새가 사람에게 의지하면 사람 또한 사랑하거늘  
 하물며 네가 삼백 가지 鱗虫 가운데 으뜸입에랴?  
 鵠血<sup>27)</sup>에 시위를 얹으면 활에 위력이 있기에  
 神人<sup>28)</sup>께서 메고 나가시자 귀신 또한 사라졌네.  
 악어가 조용해지고 자라가 잠자니 鏡面처럼 잠잠하였는데  
 신령의 뜻은 아득하고 구름만 늘어서 있었네.  
 물속에 문득 기이한 빛이 완연하더니  
 천둥과 벼락을 끼고 두 마리 용이 나왔네.  
 날리는 물망울이 거꾸로 사십리나 솟아오르고  
 삼천 자나 되는 성난 파도가 일어났다네.  
 왼쪽을 바라보니 다갈색이요 오른쪽은 먹빛과 같았으니  
 바로 潢池<sup>28)</sup>로 鴝<sup>29)</sup>의 성채를 겁박함이었네.  
 그렇지 않다면 黑鵝軍<sup>30)</sup>과 縞素兵<sup>31)</sup>이  
 깃발과 북으로 서로 맞서며 빛을 쏘아댄 것이리.  
 共工<sup>32)</sup>의 머리가 하늘의 기둥에 닿은 것이 장관이 아니요

27) 鵠血은 좋은 활의 이름이다.

28) 潢池는 연못으로 좁은 땅을 비유하는데, 여기에서는 潢池弄兵을 가리킨다. 황지농병은 좁은 땅에서 군사를 일으킴인데, 『漢書』 「循吏傳」 <龔遂>에 渤海郡에 흉년이 들어 도적이 일어나자 宣帝가 龔遂를 태수로 삼고 잘 다스릴 방도를 묻자, 龔遂가 “바닷가가 너무 멀어서 성스러운 교화에 젓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괴로운데도 관리들이 구휼하지 않기 때문에, 폐하의 적자로 하여금 좁은 땅에서 폐하의 군대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海濱遐遠, 不霑聖化, 其民困於飢寒而吏不恤, 故使陛下赤子, 盜弄陛下之兵於潢池中耳.)”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킴을 비유한다.

29) 鴝는 266년에 司馬炎이 魏를 이어서 세운 나라인데, 304년에 흉노의 劉淵이 漢王을 칭하며 西晉에 반기를 든 이래로 420년에 劉裕의 宋에 의해 東晉이 망할 때까지 무수히 夷狄이나 백성에 의한 반란을 겪은 바 있었다.

30) 黑鵝軍은 춘추시대 魯나라 昭公 21년 11월에 망명하였던 宋나라의 공자 城이 거느린 군대와 송의 권신인 華氏의 군대가 싸울 때에 공자의 軍陣인 鵠陣과 鵝陣 가운데 아진의 군대를 가리킨다.

31) 縞素兵은 흰 명주로 된 옷을 입은 병사라는 뜻으로, 漢王 劉邦이 巴蜀에서 項羽의 군대를 칠 때에 항우가 楚의 義帝를 죽인 것을 기화로 發喪하여 군사들을 흰 명주로 만든 상복을 입힌 일에 연유하여 생긴 말이다.

32) 共工은 『書經』 舜典에서 堯임금 때에 舜임금에게 쫓겨나가거나 죽음을 당하였다고 한 四凶 가운데 한 사람인데, 『淮南子』 「天文訓」에서는 “옛날에 공공과 전욱이 황제가 되기를 다투

큰 고래가 푸른 바다의 물결을 헤침이 참으로 작은 연극이리.  
 天吳<sup>33)</sup>와 海若<sup>34)</sup>은 모두 달아나서 숨고  
 산야의 늪은이와 시골의 백성은 감히 보지 못하였네.  
 큰 산기슭에 바람과 우레가 요란해도 정신이 양양하여  
 우뚝 서서 크게 노래하며 도마뱀과 땅거미를 보듯이 하였네.  
 병사들을 유인하여 흩어지고 모이게 하며 적의 형편을 엿보면서  
 구름 끝에서 구부정하게 등뺨를 드러내었네.  
 성내어 玄甲을 펼치며 그 틈으로 들어가서  
 流星이 표적을 맞추듯이 하니 그 소리가 부지직 하였네.  
 번개에 부서지고 우레에 죽으니 산이 무너지는 듯하고  
 구름이 무너지고 안개가 나뉘니 땅이 갈라지는 듯하였네.  
 부서지고 잘린 갈기를 감히 들어올리지 못하고  
 꿈틀거리며 열 길이나 되는 물 속으로 떨어졌네.  
 싸움에 이기고 나서 흰 수염을 하늘에 높이 추켜올리니  
 冥冥이 사람에게 감동하매 諾責<sup>35)</sup>도 없었네.  
 바람과 구름이 길이 窟宅을 높이 보호하니  
 赤池는 만고토록 크게 샘솟아 큰 물결을 이루리.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奇絶하다고 부르짖었거니와  
 더욱이 못에 가면 心魄이 장쾌해지리.  
 용이여, 절대로 하늘의 공적<sup>36)</sup>으로 자기가 보답받지 말지니  
 累仁積德에 말미암아 王業이 열렸다네.  
 아, 聖祖께서 화살 세 개를 얻으신 곳은  
 바로 肅慎<sup>37)</sup>에 있었던 옛집이었도다.

다가 노하여 부주산에 부딪혀 하늘의 기둥이 부러지고 땅을 맨 바가 끊어졌다.(昔者共工與  
 顓頊爭爲帝 怒而觸不周之山, 天柱折, 地維絕.)”라고 하였다.

33) 天吳는 『山海經』 「海外東經」에 나오는 朝陽의 골짜기에 있었던 水神이며, 사람의 얼굴에 머리가 여덟 개이고 호랑이의 몸에 꼬리가 열 개라고 하는데, 옛날에 흔히 그 모습을 옷감에 繡로 놓았다.

34) 海若은 楚辭 <遠游>에 나오는 전설적인 海神이다.

35) 諾責은 승낙한 말을 이행하지 않아 문책당함이다.

36) 貪天은 貪天之功의 준말로 하늘이 이룬 功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남의 공로를 가로챌을 비유하기도 한다.

아, 첫째 화살은 당시에 못의 용을 쏜 것이요  
 아, 둘째 화살은 太祖께서 몹시 성내어 定國하신 것이네.  
 아, 셋째 화살은 우리 神孫께서 天時를 의지하도록 남기신 것이니  
 북쪽으로 天狼星<sup>38)</sup>을 쏘아 사막을 안정시키시라.

人鬪龍不覿	龍鬪胡我白
鞭長不及龍之腹	夢與龍語覺莫適
飛鳥依人人亦憐	矧爾三百鱗虫伯
鵠血調弓弓有威	神人帶出鬼辟易
鼉靜霍睡鏡面平	靈意蒼茫雲脉脉
宛在中流忽異色	霹靂挾出龍二隻
飛沫倒射四十里	怒濤起立三千尺
左望如茶右如墨	無乃潢池劫晉柵
不然黑鵝軍縞素兵	旗鼓相當光注射
共工頭觸天柱非壯觀	長鯨跋浪滄溟眞小劇
天吳海若皆走藏	野老村氓不敢眠
風雷大麓神駭易	玉立高歌視蜥蜴
誘兵開合同敵便	雲邊揭出穹窿脊
玄甲怒張八有間	流星應的其聲砉
電碎雷死若山崩	雲陷霧裂如地坼
殘鬣敗鬣不敢掀	十丈蜿蜒水心擲
戰勝霜髯拂天高	感人冥冥無諾責
風雲長護窟宅尊	澎湃蕩瀾萬古赤
我聞此語叫奇絕	何況臨池壯心魄
龍乎且莫貪天爲己報	累仁積德開王迹
嗚呼聖祖得三矢	乃於肅愼之遺宅
嗚呼一矢兮當日射淵龍	嗚呼二矢兮太祖定國斯怒赫
嗚呼三矢兮遺我神孫待天時	北射天狼靜沙磧

37) 肅愼은 고대에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나라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함경도를 가리킨다.

38) 天狼은 물개자리에 속한 매우 밝은 恆星으로, 보통 矚目을 觀望한다고 하여 잔혹한 矚目者를 비유한다.

入聲陌韻의 일운도저격 7언고풍으로 23운에 이르는 장편이지만, 삼연의 작품보다는 3운이 적다. 제목뿐 아니라 압운까지 삼연과 같게 한 데서, 앞에서 살핀 詩引에서 되는 대로 지어 입으로 불렀다(漫興口呼)고 한 말과 달리, 삼연의 작품을 貶評한 데 따른 의도적 창작의식이 엿보인다. 시인이 삼연의 시가 ‘씩 괴위하지는 않음을 아쉽게 여겨(惜其詞不甚瑰偉)’ 짓는다고 한 뜻은 그 은문 希菴이 농암의 시를 경시하였다<sup>39)</sup>고 한 일화와 함께 당대 시단을 주름잡았던 老論大家에 대한 南人詩壇의 경쟁의식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측운시이므로 수구를 제외한 출구에는 평각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측각을 쓴 구절이 삼연의 11개에 비해 적은 8개가 있고, 출구에 운각과 같은 성조인 입성을 쓴 곳은 ‘鞭長不及龍之腹’, ‘宛在中流忽異色’, ‘霹靂挾出龍二隻’, ‘我聞此語叫奇絕’ 등 4개로 삼연보다 하나 많다. 이는 예스런 기풍을 추구함에서 역시 두보·한유·소식과 비슷한 경향을 지녔음을 알려 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3평조가 없음은 삼연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하삼측구는 9개로 삼연보다 훨씬 적지만, 그 가운데 ‘玉立高歌視蜥蜴’과 같이 落調인 7측구가 있는가 하면, 6측구 ‘飛沫倒射四十里’, ‘澎湃蕩瀾萬古赤’, 5측구 ‘神人帶出鬼辟易’, 4측구 ‘夢與龍語覺莫適’이 있어, 상례인 삼측조를 넘는 예가 과도한 경향이 확인된다. 또 제4자가 고평이 된 구절도 ‘無乃潢池劫晉柵’, ‘不然黑鵝軍縞素兵’, ‘玄甲怒張八有間’ 등 3구절이 있다. 이런 점들에서도 唐代 이전의 고평을 따르려는 취향을 읽을 수 있다.

요대·요점과 관련해서는 2·4·6이 모두 평성인 구절이 ‘左望如荼右如墨’, ‘長鯨跋浪滄溟真小劇’, ‘戰勝霜髯拂天高’, ‘澎湃蕩瀾萬古赤’ 등 4개가 있고, 2·4·6이 모두 측성인 구절도 ‘夢與龍語覺莫適’, ‘鼉靜鼉睡鏡面平’, ‘鼉靜鼉睡鏡面平’, ‘霹靂挾出龍二隻’, ‘飛沫倒射四十里’, ‘玉立高歌視蜥蜴’, ‘雲陷霧裂如地坼’, ‘快哉輸贏片時決’, ‘池中素蛟固無恙’ 등 9개나 있어 많이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율구는 11개로 삼연의 19개보다 적은 가운데 율런은 전혀 없어, 삼연보다 더 예스럽게 하려는 의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율구를 매우 드물게 쓰고자 했던 두·한을 따르고자 한 점과 잡언

39) 姜浚欽, 『三溟詩話』. “蔡希菴嘗輕視農岩之詩, 但稱‘水螢飛忽忽, 村犬吠荒荒.’一句云.”

구를 9개나 쓴 점에 말미암은 한편으로, 측운시인 탓에 율구를 써도 무방하다는 의식 또한 작용한 데 말미암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두보·한유 이래로 일운도저격 7언고풍의 경우 대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 바 있거니와, 이 작품에는 대장이 ‘飛沫倒射四十里，怒濤起立三千尺’，‘共工頭觸天柱非壯觀，長鯨跋浪滄溟真小劇’，‘電碎雷死若山崩，雲陷霧裂如地坼’，‘嗚呼一矢兮當日射淵龍，嗚呼二矢兮太祖定國斯怒赫’ 등 4연이나 사용되어 있다. 또 잡언을 구사한 연인 ‘人鬪龍不覿，龍鬪胡我白’과 ‘天吳海若皆走藏，野老村氓不敢脈’도 上半對下半不對의 졸박한 대장을 쓴 곳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대장의 측면에서는 평측이나 요대의 경우와 달리, 약산 또한 삼언과 마찬가지로 신식고풍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대장의 위치는 역시 일정한 규칙성이 없다.

이 시는 7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5언구 2개, 9언구 3개, 10언구 1개, 12언구 2개 등 잡언구 8개를 활용하여 변화와 기세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장편이므로, 잡언으로 보아도 무방한 7언고풍이다. 그리고 ‘鶴血調弓弓有威’，‘飛鳥依人人亦憐’의 連環句，‘龍乎’와 4회의 ‘嗚呼’로 유도된 감탄구，결미의 ‘嗚呼一矢兮’，‘嗚呼二矢兮’，‘嗚呼三矢兮’의 반복구，‘揚揚·冥冥’의 접어의 사용 등에서도 강조나 기세의 변화를 추구한 구법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표현면에서는 풍부한 전고의 활용，일운도저격의 관례를 넘는 대장의 빈용，특히 ‘共工頭觸天柱非壯觀，長鯨跋浪滄溟真小劇’이라는 9자구 대우의 도입，‘飛沫倒射四十里，怒濤起立三千尺’에서 볼 수 있는 과장법을 비롯한 화려한 수사기교가 주목된다. 이런 구법과 표현은 典重/剛健으로 대조되는 어세의 기복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이는 호방한 기상과 화려한 文彩를 동반함으로써 돋보이는 풍격을 지니게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의미구조상 本段·後段으로 이루어진 詠史詩로 볼 수 있는데，本段(제1~36구)은 史實을 기술한 부분이고 後段(제37~46구)은 그에 대한 감회나 해석을 드러낸 부분이다. 본단은 다시 1) 起段(제1~10구)，2) 承段(제11~20구)，3) 轉段(제21~34구)，4) 結段(제35~36구)으로 나눌 수 있다.

기단(제1~10구)은 백룡의 구원호소와 도조의 응낙 및 출정을 주지로 한 부분이다. 首句에서 篇意나 題語를 드러내는 장편의 통례를 따르지 않은

채, 구식마저 5언으로 하는 變調를 선택한 가운데, ‘사람의 싸움을 용은 돌아보지 않았거늘, 용의 싸움을 어찌 나에게 아뢰었던가?’라는 돌올한 起語를 던진 점이 돋보인다. 게다가 다른 부분을 모두 서정적 자아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형식을 취한 것과 구별되게, 이 단락의 전반 6구가 발화자를 도조로 하여 직접화법으로 제시된 점은 더욱 눈길을 끈다. 모두에서 편의를 드러내는 통례를 벗어나서 불쑥 던진 이런 發語는 元人 傅若金이 장편은 기구를 먼저 얻어야 한다<sup>40</sup>고 한 작법을 상기시키는 奇語라 할 만하다. 이 대목의 어세나 정조는 典重을 기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承段(제11~20구)은 백룡과 흑룡의 싸움을 주지로 한 대목인데, 묘사를 위주로 함은 당연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화려한 전거수사를 구사한 가운데, ‘潢池劫晉柵’이라 한 말은 흑룡을 叛民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싸움의 배경이나 모습이 웅위하게 그려졌을 뿐 아니라 시어의 심상이나 필세가 모두 강건하다. 특히 ‘潢池, 晉柵, 黑鵝軍, 縞素兵, 共工’을 적절히 인용한 데서 7언고풍에 요구되는 才學이 확인되는가 하면, ‘共工頭觸天柱非壯觀 長鯨跋浪滄溟眞小劇’은 역시 장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제어를 포함한 부분이라 할 만하다.

轉段(제21구~34구)은 도조의 신궁에 의한 흑룡퇴치를 요지로 한 대목으로 역시 묘사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보여 준 부분이다. 경물의 구도나 모습의 크게 잡아 융혼성을 보여 준 점은 전단과 유사하지만, 전투의 세부양상은 매우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 대조적이다. 시어·필세는 전단과 달리 평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견강한 쪽으로 상승하는 기복을 보여 준다. 과장적 직유와 함축적인 인유·은유가 눈길을 끌며, 특히 ‘玉立高歌視蜥蜴’, ‘感人冥冥無諾責’은 정제어로 볼 수 있을 듯하다.

結段(제35~36구)은 적지가 다시 백룡의 평화로운 거처가 됨을 주지로 한 부분으로, 흑룡퇴치의 결과를 簡易하고 전아한 구법으로 서술하여 앞에서 鋪敘한 바를 수결하여 심후한 여운을 지니도록 마무리되어 있다.

後段(제37~46구)은 작품을 영사시로 인식한 시인이 史實에 대한 감회와 해석을 덧붙인 부분이다. 제37~38구는 기단을 따로 두지 않아 겨를이 없었

40) 傅若金, 앞의 책. “長篇則當先得起句, 絕句則當先得後二句, 律詩則當先得中四句.”

던 편의를 드러내면서, 적지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전설만 듣고도 맛본 기절한 감회를 밝힌 대목이다. 이어진 제39~40구는 이 奇事가 하늘이 백룡에게 내린 보답이 아니라 개국을 위한 누인적덕이라고 논단한 다소 진부한 史實解釋이다. 그러나 마지막 4구에서는 도조가 얻은 화살이 셋이라면서, 그것들이 각각 흑룡의 퇴치, 태조의 定國, 신손의 待天時를 위하여 쏜 것이라는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한 데 이어, 그러니 胡族에게 점거된 故土인 遼東을 수복하는 큰 뜻을 지녀야 마땅하다는 웅혼한 결어를 던짐으로써 시상을 단았다. 사적에 대한 감탄과 국조에 대한 찬양이라는 진부한 마무리에 머물지 않고, 상상적으로 창출한 화살 셋에다 점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가미한 이 수법이야말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독특한 사실해석은 史家가 이르지 못한 곳에 안목을 발휘하여 말을 보태어 본정을 표출함이 영사시의 요체<sup>41)</sup>라고 한 宋人의 견해에 부합할 만큼 높은 식견을 발휘한 수법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事實이라기보다 허구인 데 힘입은 이와 같은 뛰어난 수결은 전아한 표현, 웅건한 기상, 격정적 정조로 뒷받침된 탓에 빛난다고 볼 수 있다.

약산의 <적지가>는 평측상으로 삼연보다 예스런 고풍을 추구하면서도 점대·대장을 통해서는 비슷한 정도로 신식고풍적 면모를 지니도록 지어진 작품으로, 시상의 전개방식과 사실의 해석·의론과 같은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상·필세·구법·수사 등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덕을 지닌 수작 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단을 서사적 줄거리에 충실하게 서술·묘사하기보다는 백룡·흑룡의 싸움과 도조의 흑룡 사살에 초점을 맞추어 세밀·장쾌하게 묘사하고, 본단의 서술시각을 이원화하여 기단은 도조의 발화로 시상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인의 시점에서 제시한 수법을 쓴 점은 형상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호방·웅혼한 氣象·情調와 剛健·華靡와 典雅·重厚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필세는 “가행은 악부인 때부터 이미 시어가 초준하였고, 이·두의 대편들은 필력을 다하였으니, 만약 평조로만 지었다면 어찌 스스로 빼어날 수 있었겠는가?”<sup>42)</sup>라고 한 견

41) 費袞, <詩人詠史>, 『梁谿漫志』 권7. “詩人詠史最難, 須要在作史者不到處, 別生眼目, 正如斷案不爲胥吏所欺, 一兩語中, 須能說出本情, 使後人看之, 便是一篇史贊, 此非具眼者不能.”

42) 胡應麟, 『詩薈』 내편 권3. “歌行, 自樂府語已峭峻, 李杜大篇窮極筆力, 若但以平調行之, 何能

해에 근접했다고 할 만큼, 7언가행에 요구되는 변화와 기세를 갖추므로써 호방하고 웅건한 풍격을 구유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삼연의 <적지가>보다는 꽤 앞선 詩格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43)</sup>

### 3) 耳溪의 〈射龍臺〉

이계 홍양호(1724~1802)는 정조 원년(1777) 10월에 권신 洪國榮의 배척을 받아 慶興府使로 출보되어 1779년 2월까지 재임하면서, <北塞雜謠> 62수, <朔方風謠> 55수 등 함경도와 연관된 시편을 매우 많이 남겼다. 같은 題名의 작품을 지은 바 있었던 徐命膺은 <삭방풍요>를 두고 우리나라 樂府歌行의 걸작<sup>44)</sup>이라고 찬양한 바 있거니와, 이 시편들은 후대에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朝鮮詩의 정립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sup>45)</sup> <삭방풍요>의 한 편인 <射龍臺>(『耳溪集』 권5)는 삼연의 <적지가>가 지어진 지 62년쯤, 약산의 <적지가>가 지어진 지 43년쯤 뒤인 1778년경에 지어진 것인데,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적지는 어디에 있는가? 함흥 동쪽의 못으로  
붉은 조개와 구슬로 지은 궁궐이 있었던 곳이라네.  
물결은 가까이 넓은 두만강에 닿고  
구멍은 아래로 차가운 바다와 이어졌네.  
이에 그 안에 신령스런 동물이 거처하였는데  
하백과 해약이 기강을 잃어버리자

自拔?”

43) 金宗鎭, 『吳光運의 시에 있어서 정취와 상상력에 대하여』, 『東岳語文論集』 36, 동악어문학회, 2000, 342면에서는 “약산의 작품은 경물을 직접 보고서 기록을 참고하여 지은 작품을 불만스럽게 여긴 탓에, 기록·상상력에 의존하여 지으면서도 서사와 묘사의 결합방식을 달리 하여 호방한 풍격을 지니도록 짓고자 한 듯하다.”라고 평가하였다.

44) 徐命膺, 『保晚齋集』 권9, <題朔方風謠>. “余得洪漢師朔方風謠一卷而讀之, 盡樂府歌行也. 委曲可以發纖穠, 鏗鏘可以協金石, 才縱而氣不怒, 局老而意不屈, 噫何其奇也. (중략) 今顧無谿谷之隻眼, 漢師之地步斤兩, 又孰能辨之? 雖然, 漢師勉之哉. 良木在山, 必有匠石者至焉. 豈可曰世常無谿谷者乎?”

45) 陳在教, 『耳溪 洪良浩 文學 研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99, 372~3면.



다른 족속이 발호하여 와서 자웅을 겨루었네.  
 검은 비늘을 현갑으로 삼아 꾸짖으며 번쩍이는 번갯불로 쫓아내니  
 약한 주인이 강한 손님의 형세를 대적하지 못하여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푸른 하늘에 하소연하였지.  
 천제께서 북해의 신 禺强<sup>46)</sup>에게 명하매  
 우강이 꾸짖었던만 오래도록 효험이 없었네.  
 이에 천제가 크게 성내고 乾符<sup>47)</sup>를 주면서  
 ‘너는 東王公<sup>48)</sup>에게 손을 빌리라’라고 말씀하셨네.  
 使命을 받들고 훨훨 날아서 箕宿<sup>49)</sup>의 궤도로 내려와서  
 한밤중에 변환하여 흰 옷을 입은 늙은이가 되었네.  
 바빠 聖人の 꿈에 들어와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영험한 솜씨를 애걸함에 예모가 공손하였네.  
 포악함을 제지하여 근심을 덜게 하고자 높은 의리를 떨쳐  
 새벽에 화살을 지니고 남쪽 봉우리에 오르셨네.  
 鄭門의 일처럼 뒤섞여서 한창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중천에서 꿈틀거리면 쌍무지개가 엇갈리는 듯하였네.  
 주인과 손을 분별할 수 없으니 어찌 가볍게 쓰랴?  
 반나절 동안 구슬프게 바라보다가 활을 거두어 돌아가셨네.  
 그날 밤에 神翁이 다시 와서 아뢰기를  
 ‘검은 놈이 도적이고 흰 것이 저랍니다.  
 공께서 마침내 능히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반드시 보답하리니  
 후세에 복록과 경사가 마땅히 무궁할 것입니다.’ 하였네.  
 玉趾를 다시 움직여서 눈동자를 돌려 보니  
 산 같은 검은 구름으로 하늘이 어둑하였네.  
 금복고<sup>50)</sup>를 날려서 한 자나 되는 비늘을 부수니

46) 禺强은 『山海經』 「大荒北經」에 나오는 海神으로 禺京이라고도 하며, 일설에는 天神이라고도 한다.

47) 乾符는 帝王이 될 標識로 하늘로부터 받은 符驗인데, 여기에서는 天帝가 내리는 符節이다

48) 東王公은 『神異經』 「大荒經」에 나오는 男仙의 명부를 관장한다는 신선으로 西王母의 대응되는 신인데, 여기에서는 도조를 비유한다.

49) 箕宿는 28宿의 하나로 하늘의 남방에 있다.

못의 물이 붉어지고 천지는 핏빛으로 변하였다네.  
 성난 갈기를 우뚝 세우고 꼬리로 물을 치니  
 우렁찬 우레가 놀라게 하고 입에서는 바람이 일었네.  
 조금 지나서 구름이 흩어지고 물결이 잦아들자  
 그 뿔을 움츠리고 입을 벌름거리며 달아났네.  
 용이 못에 돌아오자 거북과 물고기는 춤추고  
 하늘이 열려 해가 나오니 어두운 기운은 사라졌네.  
 大澤에서 뱀을 베었던 영험한 讖瑞와 부합되고  
 溇陽에서 교룡을 쏘았던 신령스러운 武帝와 같았네.<sup>51)</sup>  
 지금도 적지의 물은 쪽빛처럼 푸르고  
 사릉대 위에는 푸른 기운이 덮여 있네.  
 析木<sup>52)</sup>이 드리운 정기가 神孫을 태어나게 하고  
 창해의 뜨거운 구름이 眞龍을 보내 주었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屈伸浦에

모래를 날리고 바위를 든 자취가 남아 있음을.

赤池何在咸池東	紫貝之闕珠爲宮
波浪近接豆江濶	孔穴下與瑟海通
爰有神物宅其中	河伯海若失綱紀 異族跋扈來爭雄
黑鱗兮玄甲叱咤列缺驅豐隆	客強主弱勢不敵 乘雲上訴蒼蒼穹
帝命北海神禹強	禹強喝呵久無功
天乃震怒授乾符	曰汝假手東王公
翩然銜命下箕躔	半夜幻成白衣翁
恍惚來入聖人夢	稽首乞靈禮貌恭
排患禁暴奮高義	詰朝帶矢登南峯
矯如鄭門方酣戰	蜿若中天交雙虹

50) 金僕姑는 『春秋左氏傳』 莊公 11년 조에 나오는 화살 이름이다.

51) 이 구절은 元封 5년(B.C. 106)에 前漢 武帝가 南巡하다가 溇陽의 浮江에서 蛟魚를 몸소 사살한 일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다.

52) 析木은 十二星次의 하나로 二十八宿로는 尾·箕, 分野로는 幽·燕인데, 여기에서는 이태조의 선대가 옛날 燕나라 땅에서 산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다.

不辨客主那輕發	悵望半日還發弓
是夜神翁更來告	黑者是寇白者儂
公能終惠我必報	後世福慶應無窮
玉趾再舉回重瞳	黑雲如山天晦蒙
金僕姑飛碎尺鱗	玄黃血化池面紅
怒鬣崢嶸尾擊水	驚雷訇磕口生風
俄頃雲散浪花定	其角戢戢走喁喁
龜魚舞躍龍返淵	天開日晶氛翳空
大澤斬蛇靈識叶	溇陽射蛟神武同
于今赤池之水青如藍	射龍臺上氣籠葱
析木精垂降神孫	滄海雲蒸送眞龍
君不見屈伸浦	飛砂抉石留遺蹤

앞의 2편이 일운도저격 측운고풍인 데 대하여, 이계의 이 시는 上平聲東韻 22韻脚을 主韻으로 하고 隣韻인 冬韻 6운각을 從韻으로 한 主從通韻型 장편으로, 백량체식으로 每句用韻한 곳이 ‘孔穴下與瑟海通, 爰有神物宅其中’, ‘異族跋扈來爭雄, 黑鱗兮玄甲叱咤列缺驅豐隆’, ‘玉趾再舉回重瞳, 黑雲如山天晦蒙’ 등 세 군데 있으며, 통압의 위치는 일정하지 않다. 평성운을 취하고 압운도 달리 하였지만, 구절수를 46구로 한 데에는 약산의 <적지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약산이 삼연에게 지냈던 것과 유사한 경쟁의식과 무관하지 않은 작품일 법하다.

평운시이므로 수구를 제외한 출구에는 측각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수구를 제외하고도 평각으로 된 출구가 8개 있어, 출구에도 평각을 흔히 쓰거나 출구에 평각과 측각을 교체한 데 가까운 방식으로 예스런 기풍을 추구하였던 두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평운시인 탓에 삼평조로 된 구절이 14개나 있는 가운데, ‘蜿若中天交雙虹’의 경우 평측이 ‘평측평평평평평’으로 5평구가 되어 落調에 가까워짐을 피하지 않았다. 또 평운시임에도 불구하고 5측구인 ‘客強主弱勢不敵’을 비롯한 4측구, 3측구도 1회씩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고평구는 보이지 않는다. 拗對·拗黏과 관련해서는

2·4·6이 모두 평성인 구절이 ‘禹强喙呵久無功’, ‘矯如鄭門方酣戰’, 모두 축성인 구절이 ‘孔穴下與瑟海通’, ‘黑者是寇白者農’ 등 각각 2구씩 있어 앞의 2인에 견주어 많이 쓰이지 않은 편이다.

또 율구는 16개로 약산보다는 많고 삼연보다는 적은 가운데, ‘怒鬣崢嶸尾擊水’, ‘驚雷訇磕口生風’은 ‘측측평평측측측, 평평평측측평평’으로 된 율련이라 할 수 있어, 율구를 매우 드물게 쓰고자 했던 두보·한유와는 거리가 있다. 이로써 보면 평측상으로는 요대·요점과의 관련에서나 신식고풍에 가까운 모습을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 對仗聯은 ‘排患禁暴奮高義, 詰朝帶矢登南峯’, ‘怒鬣崢嶸尾擊水, 驚雷訇磕口生風’, ‘大澤斬蛇靈識叶, 溷陽射蛟神武同’, ‘析木精垂降神孫, 滄海雲蒸送眞龍’ 등 4개로 볼 수 있어, 삼연보다는 적고 약산과는 같은 양상이다. 이는 두·한의 일운도저격 7언고풍이 대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면모와는 현저히 다른 점이다. 따라서 대장에 있어서는 약산과 마찬가지로 신식고풍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구식을 대부분 7언으로 하면서도 6언구, 8언구, 9언구, 12언구를 각각 1개씩 삽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변화와 기세를 추구한 구식을 지닌 장편이다. 구법·어법면에서 보면, 서사투어 ‘是夜’, 代辭 ‘其中’, 부사어 ‘爰有’, 산문구 ‘黑者是寇白者農’의 사용과 ‘公能終惠我必報’과 같은 1인칭의 노출 등에서 역시 고풍적 수법을 잘 활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또 고유명사 ‘赤池, 咸池, 사룡대’와 접어 ‘喁喁, 戢戢’, 연면어 ‘崢嶸’의 사용, ‘公能終惠我必報, 後世福慶應無窮’, ‘曰汝假手東王公’의 직접화법, 그리고 ‘君不見屈伸浦, 飛砂挾石留遺蹤’이라는 구식의 변용이 수반된 行路難流의 의문문의 도입을 통해, 의미의 강화 및 어세의 변화를 추구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用事로 인상적 의경을 제시하고자 한 ‘矯如鄭門方酣戰’, ‘大澤斬蛇靈識叶’은 <용비어천가>와 삼연의 <적지가>를 踏襲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溷陽射蛟神武同’ 또한 진부한 전거수사라 할 수 있어, 學識의 빼어남과는 거리가 먼 면모이다. 대체로 구식의 변용, 화려한 대장의 사용, 일부 백량체식 압운의 도입 및 三句一聯式 章法 등을 통한 어세의 기복, 시상의 개합이라는 표현적 미덕과 꽤 화려한 文彩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미구조는 약산의 <적지가>와 마찬가지로 本段·後段의 2단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本段(제1구~38구)은 史實, 즉 전설을 포서한 부분이고, 後段(제39~46구)은 사실에 대한 평가 및 감회를 덧붙인 부분이다. 본단은 다시 1) 起段(제1~4구), 2) 承段(제5~18구), 3) 轉段(제19~28구), 4) 結段(제29~40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단(제1~4구)은 적지가 있는 곳이 함흥의 동쪽으로 두만강이나 동해로 통하는 곳이라고 그 소재를 서술한 데 이어, 백룡이 그곳에 기거함을 밝힌 내용으로, ‘백룡의 적지 기거’를 주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적지의 所在를 밝힌 것은 장편의 통례인 篇意 내지 題語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赤池何在咸池東’이라 한 起句는 굴곡을 지닌 구법이기도 하지만, 평직한 情調로 되어 있어, 장편의 기구가 奇語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돌올해야 한다는 시법과는 거리가 있다.

승단(제5~18구)은 흑룡의 침입에 따른 백룡의 구원 호소를 주지로 한 단락으로, 허구적 사적인 데 힘입어 상상력을 크게 가미하여 서사를 삼연·약산보다는 흥미롭게 펼친 점이 주목된다. 평화로운 거처에 침입한 흑룡과 사생을 걸고 다투다가 강한 힘에 견디지 못한 백룡이 하늘에 구원을 호소하니, 天帝가 北海神 禺强을 통해 꾸짖었다는 것은 전설에 나타나지 않는 독창적 내용이다. 또 천제가 성을 내며 乾符를 주어 東王公에게 호소하게 했다고 하였는데, 도조를 仙人 東王公으로 환치시킨 것은 전설의 말을 전환시켰을 따름이기도 하지만, ‘神人’이라고만 언급한 약산보다는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 제7구에 12자로 된 長句인 ‘黑鱗兮玄甲叱咤列缺驅豐隆’을 써서 변화를 꾀한 것은 어세·시상에 모두 起伏이 생기게 하면서 活語까지 포함시킨 솜씨를 보인 대목이다. ‘曰汝假手東王公’, ‘公能終惠我必報, 後世福慶應無窮’으로 직접화법을 도입하여 서술방식의 변화를 꾀한 점 또한 포서의 묘미를 높여 준 수법이라 할 만하다.

전단(제19~28구)은 동왕공의 출진·퇴각과 백룡의 재호소를 주지로 한 대목으로, 도조가 처음에 출진했다가 퇴각한 것으로 처리한 점이 삼연·약산과는 다른 점이다. 이는 상상력을 보탤때보다 앞의 2인처럼 실록이나 <용비어천가> 단계의 전설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射龍臺記>에 기술된

것과 같이 변개된 화소까지 수용한 탓이기는 하지만, 鋪敍의 묘미가 확대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백룡과 흑룡이 싸우는 장면을 화려한 수사와 고조된 정조로 묘사한 데 이어, 전아하고 화평한 어조로 된 백룡의 발화를 삽입하는 개함을 구사한 점 또한 돋보인다. 이런 점은 약산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삼연에 비해서는 돋보이는 요소라고 할 만하다.

결단(제29~38구)은 東王公의 신궁에 의한 흑룡 퇴치와 그 결과를 주지로 한 대목으로, 대체로 상상적 묘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있다. 동왕공이 다시 출진하여 활을 쏘아 흑룡을 맞추자, 흑룡이 기세가 꺾여 달아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데 이어, 그로 말미암아 적지에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서술하였다. 흑룡이 화살을 맞은 뒤의 모습은 거칠고 강한 어세로 펼쳐진 반면에, 잠잠해진 적지의 정경은 부드럽고 평온한 어세로 그려져 있어, 삼연의 <적지가>보다는 변화가 뚜렷하다. 화살을 맞은 흑룡의 모습을 그린 대목으로 이야기의 절정부라 할 수 있는 연이자 대장연이기도 한 ‘怒鬣崢嶸尾擊水, 驚雷訇磕口生風’은 정제어를 포함하고 있어, 포서의 묘미를 높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sup>53)</sup>

후단(제39~46구)은 사실에 대한 평가와 감회를 덧붙인 부분으로서, 도조의 흑룡퇴치 사적을 漢 高祖의 大澤斬蛇, 武帝의 潯陽射蛟 고사와 같은 異蹟이라고 평가하고, 그것이 왕조개창의 참서임을 찬양한 데 이어, 사적에 대한 감회를 덧붙인 단락이다. 마지막 2구인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屈伸浦에 모래를 날리고 바위를 든 자취가 남아 있음을.(君不見屈伸浦, 飛砂挾石留遺蹤?)”은 결미의 표지로 6언구를 쓰면서, 아울러 行路難流에서 자주 쓴 바 있었던 ‘君不見’으로 유도되는 의문문으로 수결한 것으로, 심장한 흥취가 언외에 남아 있게 한 뛰어난 結語라 할 수 있다. 율시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합처에서는 斷送, 즉 완전히 송별해 버리는 것처럼 여운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해소함을 경계하고, 淵永, 즉 깊고 유장함을 필요로 한다<sup>54)</sup>고

53) 본단 전체에 대한 이러한 분석·평가를 용인할 경우, 김남기, 「적도와 적지를 노래한 김창홍과 홍양호의 서사한시 연구」, 412면의 “서사와 묘사가 어우러져 생생한 감동을 느끼도록 한다. 김창홍의 <赤池歌>에 비하여 서사 장면이 극대화되어 있다.”고 한, 본단의 전·결단을 두고 내린 것으로 보이는 평가는 일면적인 타당성만 지닌다고 할 것이다.

54) 傅若金, 앞의 책. “大抵起處要平直, 承處要春容, 轉處要變化, 合處要淵永. 起處戒陡頓, 承處戒促迫, 轉處戒落魄, 合處戒斷送.”

한 시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해석은 상투성 내지 진부성을 지닌 데다, <용비어천가>와 삼연의 <적지가>를 도습한 구법으로 되어 있어, 이런 효과를 퇴색시킨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이계의 <사룡대>는 여러 모로 예스러움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한 7언장편으로서, 본단의 포서가 적절성을 유지한 가운데, 서술과 묘사에 모두 창의성이 가미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정조의 기복, 필세의 변화, 수사의 화려함 등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장편가행에 요구되는 제반장점을 대체로 보유하도록 형상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기상·정조는 호방을 기조로 한 가운데 전중으로 변화를 주었고, 필세 또한 건강과 평직의 조화가 대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약산의 <적지가>에 비해서는 미약하게나마 호방·웅혼한 풍격을 지닌 작품으로 볼 수 있고, 삼연의 <적지가>에 비해서는 필세·정조의 변화·기복이나 文彩의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설의 줄거리에 너무 치중한 점이나 용사와 史實해석에서 상투성을 보인 점은 약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3. 結語

이태조의 조부 度祖를 주역으로 한 赤池傳説은 태종조부터 전승된 開國前兆譚으로, 민간에서 발생하여 향유되다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왕조가 날조하여 민간에 전파시킨 설화였을 것이다. 洪良浩의 <射龍臺記>로 보아 세종대 이후에도 계속 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전설은 <용비어천가> 이래로 官民兩邊의 시가문학에서 다 신성성·진실성을 인정받으며 두드러진 제재로 수용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예인 김창흡의 <적지가>, 오광운의 <적지가>, 홍양호의 <사룡대>는 모두 50구 전후의 장편 7언고풍으로서 비교적 관점에서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필요로 하는 수작들이다.

入聲陌韻의 一韻到底底格 7언고풍인 김창흡의 <적지가>는 26운의 장편으로서 평측상으로 예스런 고풍의 면모를 지닌 가운데, 黏對·대장의 측면에서는 신식고풍적 면모도 지닌 작품이다. 구법·어법·표현과 시상전개의

특성으로 보면, 전편을 지배하는 필세에는 老健한 미덕을 발휘한 수작으로 볼 수 있으나, 시체·제재에 부합하는 돋보이는 풍격을 지닌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구식·필세의 완만함, 전설의 충실한 수용에 그친 포서의 안이성, 사족이라 할 후단으로 인한 結構의 느슨함, 특히 氣象·情調·문채·재학 등에서 두루 돋보이는 요소가 부족한 본단의 약점으로 인하여 7언고풍에 요구되는 필수적 미덕들을 잘 갖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와 연관된 제재를 선구적으로 뛰어나게 형상화한 작품이자 대가다운 노련함을 발휘한 鶯鶯고풍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역시 입성백운의 일운도저격 7언고풍인 오광운의 <적지가>는 23운의 장편으로서, 평측상으로 삼언보다 에스런 고풍을 추구하면서도 점대·대장을 통해서 삼언과 유사하게 신식고풍적 면모를 지닌 작품이다. 시상의 전개방식과 사실의 해석·의론과 같은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상·필세·구법·수사 등에서 두루 미덕을 지닌 수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단을 서사적 줄거리를 충실하게 서술·묘사하기보다는 백룡·흑룡의 싸움과 도조의 흑룡 사살에 초점을 맞추어 세밀·장쾌하게 묘사하고, 전편의 서술 시각을 이원화하여, 기단은 도조의 발화로 시상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인의 시점에서 제시한 점과 결단의 독자적 사실해석은 형상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호방·웅혼한 氣象·情調와 剛健·華靡와 典雅·重厚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필세는 7언가행다운 변화와 기세를 갖추으로써 호방·웅건한 풍격을 구유하게 하였다.

上平聲東韻 主韻, 冬韻을 從韻으로 한 主從通韻型 7언고풍인 홍양호의 <사룡대> 또한 46구의 장편으로서 평측과 점대·대장 모두 에스러움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한 7언고풍이다. 본단의 포서가 적절성을 유지한 가운데, 서술과 묘사에 모두 창의성이 가미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정조의 기복, 필세의 변화, 수사의 화려함 등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장편가행에 요구되는 제반장점은 대체로 보유하고 있다. 또 기상·정조는 호방을 기조로 하면서, 전중으로 변화를 주었고, 필세 또한 건강과 평직의 기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약산의 <적지가>보다는 다소 미약하게 호방·웅혼한 풍격을 지닌 한편으로, 삼연의 <적지가>에 비해서는 필세·정조의 변화·기복과 文



彩의 화려함에서 장점을 지닌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설의 내용에 매몰되고 용사와 사실해석에서 상투성을 보인 점은 약점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동일한 우리나라의 전설적·역사적 제재를 읊은 이 3편의 장편시가 특성과 우열에 다소 차이를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통적으로 7언고풍, 조선적 한시, 서사적 영사시로서 갖춘 우수한 형상성에 의하여 18세기 한시사의 성취에 일정하게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姜浚欽, 『三溟詩話』.  
權 近, 『陽村集』.  
金昌翁, 『三淵集』.  
卞季良 외 편, 『太宗實錄』.  
傅若金, 『壬後集』.  
費 袞, 『梁谿漫志』.  
徐命膺, 『保晚齋集』.  
吳景旭 편, 『歷代詩話』.  
吳光運, 『藥山漫稿』.  
李 穡, 『牧隱文藁』.  
李廷馨, 『東閣雜記』.  
李 荇 외 편, 『新增東國輿地勝覽』.  
鄭麟趾 외, 『龍飛御天歌』.  
鄭 摠, 『復齋集』.  
河 崙 외 편, 『太祖實錄』.  
胡應麟, 『詩藪』.  
胡震亨, 『唐音癸籤』.  
洪良浩, 『耳溪集』.

### 2. 단행본

呂運弼, 『역주 약산시부』 2, 도서출판 월인, 2012.  
王 力, 송동준 역, 『중국시문학』 2, 소명출판, 2005.  
陳在教, 『耳溪 洪良浩 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99.

### 3. 논문

金南基, 「赤島와 赤池를 노래한 金昌翁과 洪良浩의 敘事漢詩 研究」, 『德成語文學』  
10,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395~415면.  
김남기, 「三淵 金昌翁의 詩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1~176면.

金宗鎭, 「吳光運의 시에 있어서 정취와 상상력에 대하여」, 『東岳語文論集』 36,  
동악어문학회, 2000, 333~349면.

呂運弼, 「藥山 吳光運의 詩世界」, 『韓國漢詩作家研究』 15, 태학사, 2011,  
495~544면.

## Three Pieces of Seven Letters Archaistic Poem about the Jeokji Legend

Yeo, Woon-pil

“*Jeokjiga*” written by Samyeon Kim Chang-heup is a long piece seven letters archaistic poem which has an old fashioned and new style looks together. The stroke of the whole work is experienced and robust, but has a not excellent appearance requiring for its style and material. By the reason of several demerits it can not be regarded as an excellent piece.

“*Jeokjiga*” written by Yaksan O Kwang-woon is also a long piece seven letters archaistic poem that has an older fashioned than Samyeon's and a new fashioned appearance at the same time. It has surpass looks not only in contents but also in sprit and rhetoric thoroughly. Its special merit is in the description by adjusting the focus on specific situation by leaving out narrative plots partly, and has excellent stroke with variation of spirit and tone of the work.

“*Saryongdae*” written by Yigye Hong Yangho is also a long piece seven letters archaistic poem that is sought after a new style on the whole. The merits of this work are a excellent narration of body, variation of stroke and rhetoric magnificence. Yigye's work is slightly openhearted appearance than Yaksan's, has better variation of stroke and magnificence of literary embellishments than Samyeon's.

Keywords : Jeokji legend, seven letters archaistic poem,, Samyeon Kim Chang-heup, Yaksan O Kwang-woon, Yigye Hong Yang-ho, analysis, evaluation

접수일자: 2013. 3. 31  
심사기간: 2013. 3. 31~2013. 5. 20  
게재결정: 2013. 5. 20